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

성도들에게 특별한 12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의 마지막 12월, 대강절을 맞이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 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매주 다른 색의 촛불을 더해가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대강절 첫 주는 진보라색, 둘째 주는 보라색, 셋째 주는 연보라색, 넷째 주는 분홍색 촛불을 밝히는데 이는 각각 소망, 평화, 기쁨과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흰색 촛불을 밝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완성한다. 또한 이렇게 초의 색깔이 점점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대강절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계획 등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 좌절,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참된 평화, 기쁨, 희락을 누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가지 색으로 메시지 전달 광림교회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본당과 로비, 밀레니엄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트리를 설치한 광림 청년부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감과 분노, 압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4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금색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붉은색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예수님, 녹색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흰색은 이 땅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밀레니엄 광장에 'Jesus ♥ U' 글자를 새긴 조형물을 설치했고,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광림의 제단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본당 로비 포토존

벽면에 사진을 전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이번 트리 제작을 담당한 청장년부 성은정 성도는 “코로나와의 끝없는 싸움으로 어떤 해보다 상황도 마음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셨을 모든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소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상황들 속에 도우심을 구하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트리와 포토존 데코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 드릴 수 있게 하심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가득한 성탄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다고 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린도후서 5장 14절)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과 친구들도 세월이 흐르자 그를 잊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고독한 가운데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 있던 돌 틈에서 푸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방에 면회를 왔던 사람이 이 감옥 안에 핀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왕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폴레옹에게 건의를 하여 석방케 하였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가꾸었습니다. 그는 꽃을 통해 생명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르니와 같이 소망을 품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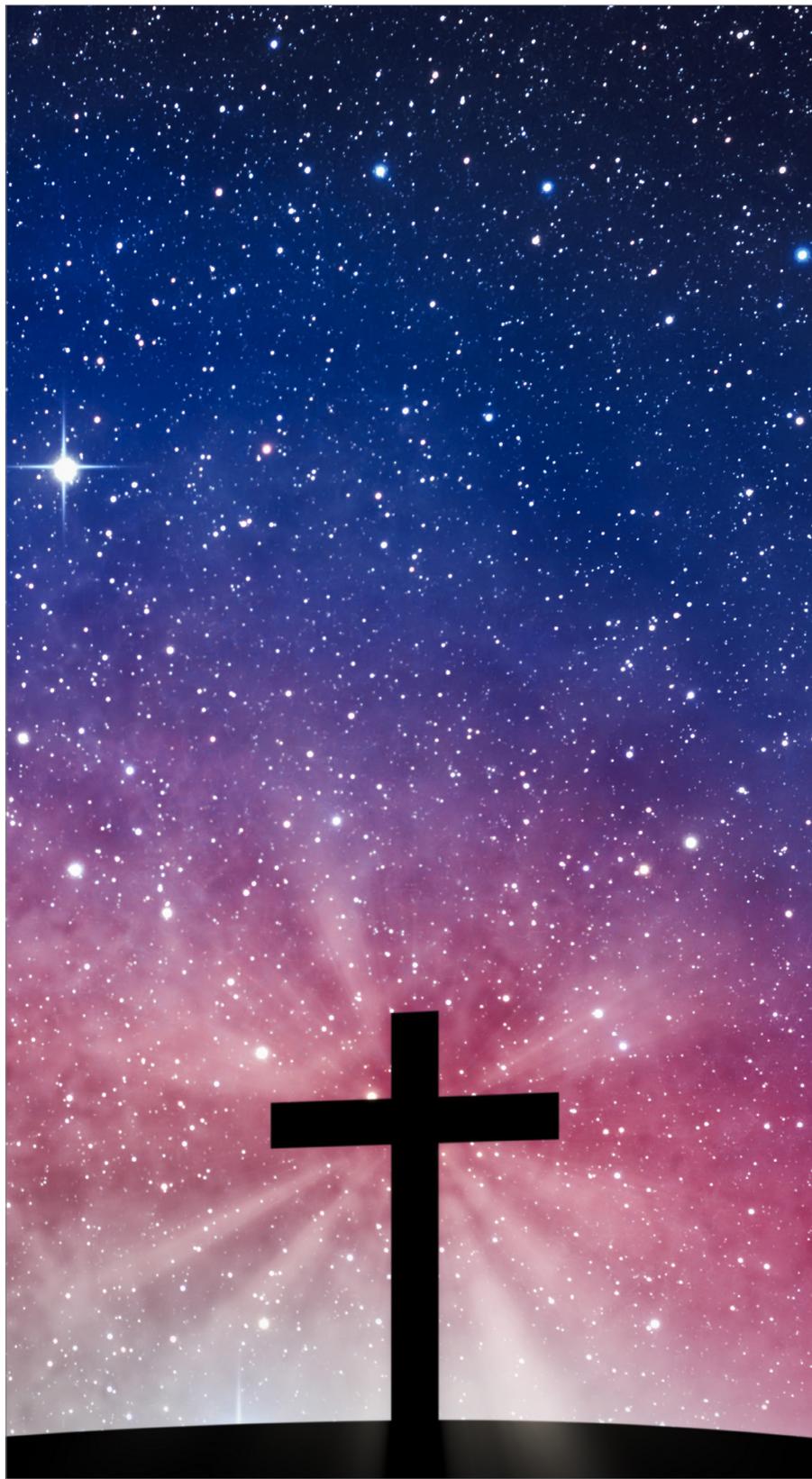
본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지친 존재가 아니라 새롭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을 품을 때 새롭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속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생명의 본질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와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힘, 재능, 화려한 삶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린도후서 5장 13~17절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욕심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것이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둘째, 십자가의 사랑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심으

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녹아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마 13:44).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둔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기 위해 재산을 팔 때 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땅 속에 묻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진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 가치에 중심을 둔다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맺는 삶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소망을 품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남선교회총연합회, 사랑나눔행사 펼쳐

김포 은빛마을, 안산 만나복지원 방문해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11월 15일 주일 이동복지시설인 <김포 은빛마을>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안산 만나복지원>을 찾아가 사랑나눔행사를 펼쳤다. 이전에는 분기에 한차례 도움이 필요한 시설을 선교회와 교구의 동참으로 물품을 기증받아 찾아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

선교회 및 사업본부 소속 임원들이 들로 나누어 방문, 후원금과 생필품 그리고 광림교회 '나눔의 집에서' 기증받은 의류들을 전달했다.

은빛마을은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대안가정의 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10여명의 아동과 이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만나복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0여명과 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이곳 시설들은 광림교회의 방문을 반기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오는 발길이 끊어졌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코로나로 인하여 남선교회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광림교회 해외선교지와 국내 미자립교회에 대하여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행사도 예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 이외에도 그동안 후원을 계속해 왔던 <춘천 나눔의 동산>은 조만간 생필품 등을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서울남연회 2021년도 정책 협의회



- ◀ 서울남연회 엠블럼
- 세 사람 : 연회, 지방회, 교회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모습
- 청색계열의 색상 : 신뢰와 치유, 회복의 색
- 십자가의 원 : 소통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봄
- '함께' 워드마크 : 서울남연회의 함께하는 가치를 한글로 나타냄
- Standing Together : 함께 세워감
- Stronger Together :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짐

지난 12월 1일(화), 서울남연회 2021년도 정책협의회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었다. 김정석 감독은 개회예배에서 "나은 미래를 위해 세워야 할 것"(히 10:39)이라는 설교를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세워가는 연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을 강조했고, 이어서 연회

의 가치와 슬로건을 담은 엠블럼을 발표했다. 엠블럼은 교회, 지방회, 연회가 함께 세워가는 형상과, '함께'라는 워드마크로 디자인되었다. 이어서 각 분과위원회의 토의가 이어졌고 전체 분과위원회 발표 및 종합 토의가 있었으며, 특별히 미자립 교회 지원 프로젝트, 장학

위원회 신설, 준회원 및 장로 보충 교육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서 짧게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1월 목회자 금식 기도회를 시작으로 '나세남(나누고 세워가는 서울남연회) 프로젝트'라는 미자립 교회 지원 프로그램 선발과 세미나 등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2020 하반기 목회세미나> 광림수도원에서 열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2020년 하반기 목회세미나>가 12월 8일(화)~10일(목)까지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목회세미나는 지나온 목회를 되돌아보고, 목회의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목회 보고 시간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온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찾아가 만난 심방 이야기, 교구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헌신으로 섬기신 성도님의 이야기, 힘든 시기에도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에 임했던 성도님들의 이야기 등 넘치는 간증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새 시대는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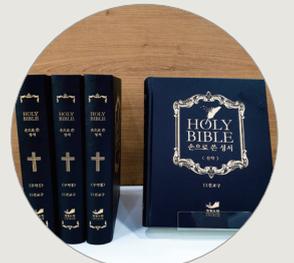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분명한 선교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2021년에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온 교역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회회했다.

김대영 목사(문화홍보실)

포토 뉴스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중보기도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했다.



하반기 성경필사
2020년 상반기 성경필사 제출자를 대상
에게 하반기 성경필사를 배포하고 있다



온타임
온타임 바로가기 QR코드



온라인 속회
온라인 속회 바로가기 QR코드

담임목사 동정



12/1	서울남연회 신년정책협의회
12/6	주일설교
12/8-10	목회세미나
12/13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사랑의쌀 전달식
	사랑의연탄 전달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시편 105:17~19)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범유행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이 정지되었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통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9일 삶의 굴곡과 고난 앞에서 깨어지고 지친 심신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광림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로 얼룩진 나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의 약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눈물로 드린 적도 많았고, 왜 이래야만 하느냐고 하나님께 투정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 결연 항상 내가 너를 돌보고 있잖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때로 제가 너무 지쳐있을 때는 저를 등에 업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이고심이었습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를 죄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지금의 저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5)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선교회총연합회 디모데부센터장, 갈릴리 성가대, 남성 성가단, 카메라 봉사 등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걸어 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터널의 끝에 다다르면 밝은 빛이 비춰오듯이 힘든 시기를 잘 참고 인내하면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태호 목사 (남선교회총연합회 디모데부센터장)

<Art Calendar 2021 전시회> 12명 아티스트와 함께

광림교회 캘린더, 하나님의 마음 담은 작품들로 구성



광림 이레센터 소속 발달장애 화가 12명의 <Art Calendar 2021 전시회>가 장천 갤러리와 온라인에서 개최되었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장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는 코로나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아트캘린더 2021 전시회'라고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으면 작품으로 연결된다. 창의적인 형상과 아름다운 색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화한 그림들로 구성되어 한 작품, 한 작품 감상할 때마다 감동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은 벽걸이 형태로도 제작되어 모두 완판되었으며, 수익금 일부는 작가의 이미지 사용료로 지급되었다. 또 몽골,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심천 등 해외 선교지에도 보내져 작가들이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성도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전달되는 2021년 광림교회 탁상용 달력에 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올해 광림교회 성탄카드와 서울남연회 성탄카드에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정은영, 박진수 화가의 <포인세티아>, <행복한 크리스마스 마을>이라는 작품으로 각각 제작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우형진 권사(사랑부 위원장)는 "광림교회 사랑부는 1991년 시작되어 2021년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사랑부가 30주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참여 작가와 작품들

이준현 <풀밭 위의 고양이>, 김혜원 <꽃들의 향연>, 서선욱 <노래하는 꽃밭>, 김기현 <다함께 꽃길>, 전지원 <시원한 내 친구들>, 박지우 <화관>, 윤여운 <주전자>, 정은영 <다람쥐와 도토리>, 김기홍 <좋은 우리 엄마>, 김기현 <비상하는 때>, 조희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 전요한 <특별한 세상>

아트캘린더 2021 전시회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

2021년 광림 캘린더



어려운 이웃들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사업위원회>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신동우 장로)는 매주 수요일 새벽 5시30분 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현금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매주 갖는 것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하루만 사랑나눔 행사를 가진다. 장소도 종전에는 장천홀 1층 로비에서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장천홀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이번달 첫째 주 수요일인 12월 2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인원인 209명이 찾아왔으며, 이들에게 성경주절로 포장된 사탕 및 선물과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중복해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찾아온 어르신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이달 처음 나온 사람이 29명이나 되었다.

신동우 장로는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시간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동안 익숙한 얼굴의 고령자들이 많이 줄어든 반면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령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

을 보내고 있음을 느끼며, 이들을 위한 사랑나눔행사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사회사업위원회는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펼치고 있는 <2020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도 연탄 1,300장을 후원하였다.

한편 사회사업위원회 회원 25명은 지난 11월 14일 전북 순창에 있는 강천산 국립공원을 찾아가서 트레킹을 하며 선교사업에 대한 활력증진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성경말씀 암송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경암송 챌린지 <별은 내 가슴에> 12월 19일(토) 자정, 접수 마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23절 말씀 아멘”
 “또박또박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대견해요. 코로나로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고요한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말씀을 외우며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김지연 성도)

성경암송 챌린지 <별은 내 가슴에>가 19일(토) 자정, 접수가 마감된다. 광림 교회학교는 대강절 기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교회학교 친구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The Voice' <온라인 찬양제>를 열

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튜브를 후끈 달궜다. 이번에는 말씀암송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암송해요

참여방법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마태복음 1:18~2:23 말씀 중 한 구절을 암송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각 부서 전도사님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된다. 아이들이 암송한 한절의 말씀은 모아져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완성할 예정이다. 암송할 때는 인물의 대사 부분에서 의상을 갖추고 연기하면 더 좋다고 하며 영아부는 부모님과 함께 암송하면 된다. 또 핸드폰 촬영 시 꼭 가로 모드 촬영을 부탁했다.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힘든 건 어른들만이 아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도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외부활동 마

저 제한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호영 목사(교육국)는 “이천 여 년 전 소망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절 캄캄한 밤중에도 소망의 등불을 가장 먼저 밝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별을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과 칠혹 같은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소망 없는 어둔 터널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성경암송 챌린지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암송하며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시대의 소망의 등불을 밝혀가길 기도드립니다”라고 했다.
 덧붙여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은 평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양식이 된다고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신앙 간증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명

안녕하세요. 청년부 1교구 지구장 지영호 형제입니다.
 2013년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체험을 한 후 저의 삶의 방향성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신 담당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2014년 1월, 95도래 담당 속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내성적인 성격에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모임을 이끌어야 하는 속장이라는 직분은 어려움을 넘어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아들였던 것은 단순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큰 결단을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 저희를 구원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예수님에 비해 흠이 많고 완전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과정에서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속장 자리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자리를 감당하면서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원들에게 상처받기도 상처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붙잡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속장의 자리를 결단했던 순간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쉽 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저에게 “속장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라는 질문들이 들어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뎠던 건지 곰곰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깊게 돌이켜 보고 나서야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교회 사역에 치지거나 무뎠던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간증이 각자의 직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지영호 지구장(청년부)

줌(ZOOM)으로 진행되는 예비속장교육!



광림교회 청년부는 11월 21일(토)부터 12월 12일(토)까지, 4주간 예비속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비 속장 교육은 청년부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예비속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청년부에서는 하반기 예비속장교육을 줌(ZOOM)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7명의 청년이 이번 하반기 교육을 통해 수료하게 될 예정이며, 속장과 속장을 돕는 헬퍼로 헌신하게 됩니다.

예비속장교육은 4주간 진행됩니다. 1~3주차에는 속장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교육합니다. 1주차에는 예배에 대해서, 2주차에는 감리교 속회에 대해서, 3주차에는 속장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4주차에는 앞으로 속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비속장교육은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삶 나눔입니다. 3가지 질문(감사, 회개, 사명)을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로, 교제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강의입니다. 속장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교육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4주 동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합니다. 네 번째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교회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합니다. 다만 이번 하반기 예비속장교육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식탁의 교제가 빠졌습니다. 추후 거리가 완화된에 따라 예비속장들과 식탁의 교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강의를 진행한 교역자가 예비속장들을 식사와 다과를 통해 섬기고자 합니다. 본을 보임으로서 훈련생에게 섬김을 전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사도(마 10:2-4), 70명의 제자(눅 10:1), 500명의 부활의 증인(고전 15:6)이 있었습니다. 예비 속장교육은 500명의 부활의 증인에서 70명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훈련생들이 4주간의 예비 속장교육을 수료하고,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속장(제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함께 행복 합시다!

- 목회현장 -



김주승 목사 (청년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난 1월부터 청년부 새가족 교육(4주)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예수 영접모임(세례교육)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세례 받지 않은 청년들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교육 마지막 시간에 한 명씩 호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진실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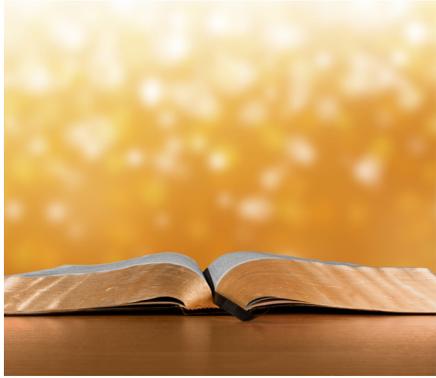
새가족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에 등반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 친교, 훈련, 사역, 봉사, 전도, 선교에 동참함으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속장님에게 추천(부름)을 받아 예비 속장교육에 참여하여 4주간 교육을 받고 청년부를 대표하는 속장(예수님의 제자)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속장)로 삼을 때 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80명의 새가족에게 4주간의 신앙교육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30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명의 청년들이 예비 속장교육을 수료했습니다.

2021년의 목표는 300명의 새가족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50명을 제자(속장)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에 담긴 "츄즈라이프"

<광림남교회>



살림! 주님 주시는 오늘 하루도 평안 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춰버린 일상과 시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기다리며 지쳐

갈 때쯤 츄즈라이프를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알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곳저곳을 쫓기듯 습관처럼 다녀야했던 저에겐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강의를 들었지만 2천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난 사건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도 짧게 지나갔고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매 년마다 츄즈라이프에 참여하시는 연료하신 권사님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더 알고자 예배 후에 한 시간을 기다리며 차가워진 김밥과 차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말씀에 갈급함을 채우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닳고 싶은 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종교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저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시 119:116)

진정숙 집사(51교구)

'송이꿀 성경 동화' 영상으로 만나다

<광림서교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콘텐츠가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지배적이고 그런 콘텐츠의 위협에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광림서교회는 어린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영상 성경동화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성경동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송이꿀 성경동화'라는 타이틀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광림서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목소리 녹음에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총 60권의 성경동화 전집을 사용하여 매주 1권씩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에 1권을 시작으로 7번째 성경동화가 완성되어 유튜브에 공유하며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주변 어린이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음 순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이신 황혜원 성도님은 "성경 동화를 주중에 아이와 같이 보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퀴즈를 통해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엄마인 저도 아이와 함께 다시 성경을 봐야겠다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녹음으로 온 가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섬겨 주신 김성욱 집사님은 "직접 동화 안에 성경인물이 되어 보니 아이들과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과 하나 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홍수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규 목사(광림서교회)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광림북교회>

예수님 탄생 기다리며 성탄트리 장식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마 4:16)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 있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더 혹독한 추위와 어둠, 사망의 그림자가 세계 열방 가운데 드리워진 것 같아 절실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요즘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광림북교회에서는 꽃꽂이 선교회와 남성속회 가족들, 새가족들, 교회학교 친구들이 동참하여 성탄 트리 장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당과 로비에 대형트리를 설치하고, 교회 내외부 곳곳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몄습니다. 포토존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Extravagant Worship(과도하게,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광림북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장식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또 삭막해져 있는 이 시기에 성탄 장식을 하며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향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마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나는 이들 또 민락천에 산책 나온 이들이, 교회의 성탄 장식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트리니티 찬양단> 창단 30주년 맞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트리니티 찬양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미경 장로를 만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찬양 사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트리니티 찬양단>은 언제, 어떻게 창단되었나요?

1990년 3월, 트리니티 성경공부 시작 전에 혼자서 찬양인도를 했었는데 찬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보에 모집광고를 냈더니 7명이 신청해서 저를 포함해 8명의 인원으로 1990년 9월에 트리니티 찬양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찬양단은 그동안 어떤 사역들을 했나요?

처음 찬양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

르시는 곳은 어디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 내 행사(전교인여름수련회, 여성교회 행사, 중보기도 세미나 등) 국내교회, 해외교회, 군부대, 소망교도소, 병원선교(신촌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샘물 호스피스, 나눔의 동산 등에서 찬양했고 특히 제17차 세계감리교 감독대회(브라질), 제18차 감독대회(영국)를 비롯해 4번의 미국 찬양선교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태국 등 해외 찬양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태국선교를 꾸준히 해 오신 걸로 아는데 기억에 남는 은혜와 열매들이 있다면?

태국에 처음갔던 2004년에는 방콕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으며 태국복음성가경연대회를 1~5차까지 매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방콕에서 6~7시간 떨어진 시골에 있는 교회들과 학교에 찬양선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불교인이 90%인 태국은 서양음악은 기독교 음악이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다. 학교마다 불상과 온갖 불화들이 장식되어있고,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생각하여 교실과 강당마다 불상, 왕 사진, 힌두교 코끼리우상 등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태국학교는 매주 금요일에 특별활동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불교와 태국 전통문화를 가르쳤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찬양사역을 했던 폐차분 지역에서 지난 11월부터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불교를 안 배워도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트리니티 찬양단의 사역을 통해 주신 귀한 열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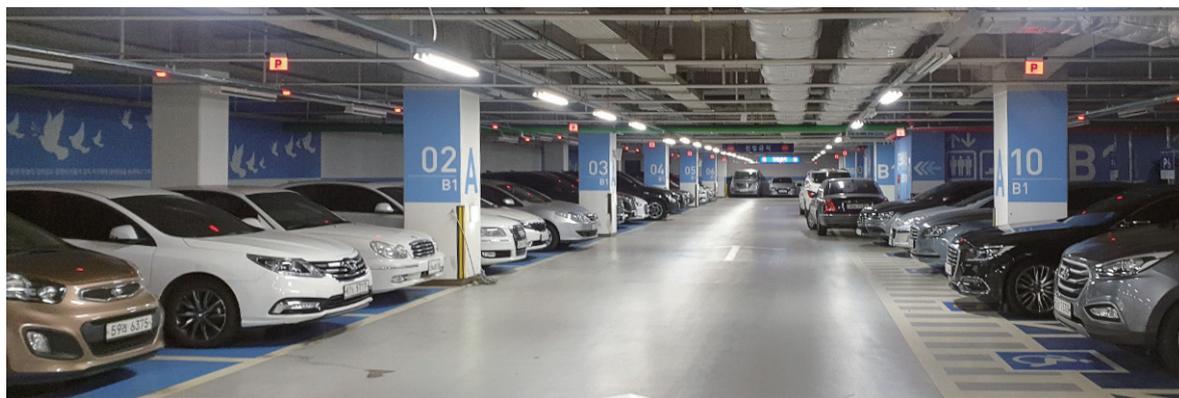
창단3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0년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려 합니다. 찬양사역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희 트리니티 찬양단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영희 기자 yhbyun1010@hanmail.net

광림사회봉사관 주차장, 무인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정비



광림사회봉사관 주차장이 새로워졌다. 기존의 수동 주차관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며 성도들의 출입이 편리해졌다. 또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박스가 없어지면서 공간이 넓어져 시야 확보가 좋아졌다.

11월 15일 주일부터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2대의 주차공간표시 전광판은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 까지 각 층의 주차가능 대수를 숫자로 표시해 성도들의 차량 주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각 층에서 주차 가능한 장소는 초록색불로 표시되고, 빨간색은 이미 주차가 된 곳이다.

외부차량, 신용카드로 사전정산 후 출차
주차비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외부 차량을 위한 주차 사전정산기는 사회봉사관 1층 로비와 7층 BBCH홀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사회봉사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이안수 장로(관제위원장)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주차장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간소화 했다. 운영 방법의 변화로 경비 절감의 효과와 주말날 주차 봉사자들의 수고가 조금은 수월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광림사회봉사관 주차장은 광림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문화 선교를 담당하는 1층 루체 포레 카페, 빛의 숲 서점, BBCH 홀 등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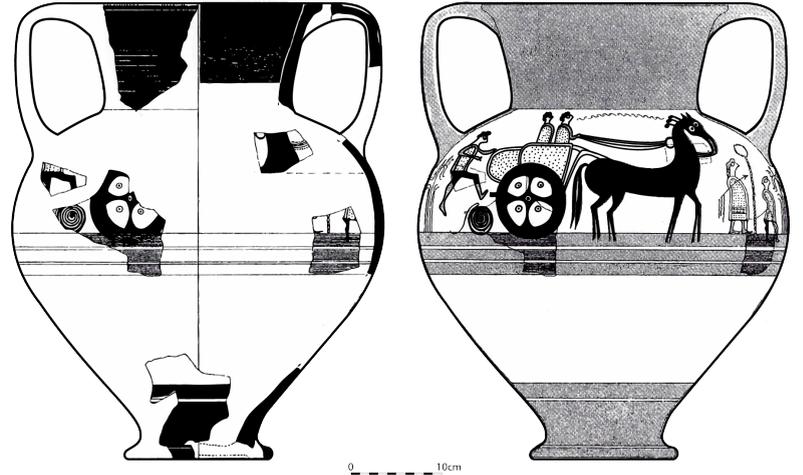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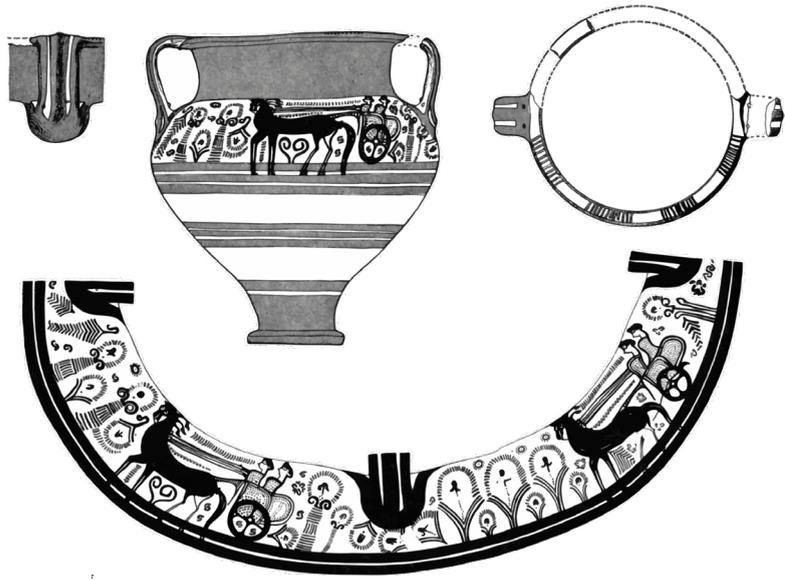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기존 차량주차등록으로 무료 출입이 가능하고, 미등록 성도들은 행정실에 비치된 서류 작성과 각 선교구 목사, 교구 전도사 확인을 거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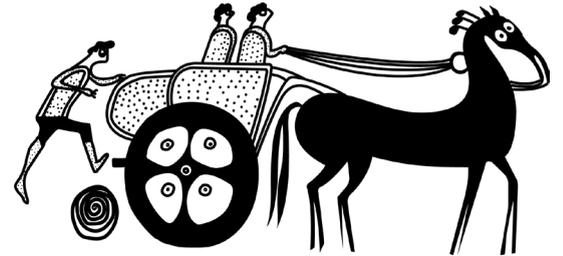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9 블레셋 병거(Mycenaean Krater)



▲ 텔단의 무덤(T387)에서 발견된 미케네 양식 토기

→ 두 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고 있고, 병거는 청동으로 무장되어 있다.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탔는데, 앞 사람은 고삐를 쥐고 있다. 이 병사들은 병거처럼 청동 갑옷 무장을 하고있다. 머리카락의 모양은 둥글둥글한 곱슬 머리인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는 모압, 암몬, 아모리, 아람, 아말렉 등 이스라엘 이외에 등장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의 도움으로 이 민족들의 삶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민족들의 특징이나 신앙, 민족의 인구수, 종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주변 민족 중에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진 가장 가까운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제일 처음은 블레셋입니다. 해양민족들 중의 하나인 블레셋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시기에 이들이 지중해 지역에 남겨 놓은 족적이 워낙에 대단했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이곳 저곳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대략 1175BCE 즈음에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 문명이라는 찬란한 문명을 이끈 사람들이었는데 기원전 1200년경 도리스 사람들이 이들이 살던 그리스를 침입하면서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 해상과 육상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입니다. 이들이 비록 도리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듯 가나안 지역의 해안 지방에 정착하기는 하였지만,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머(Homeros)의 글과 그리스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유물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미케네 사회가 탁월한 전쟁 기술을 보유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무기 중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손꼽혔

던 것은 '병거'였습니다. 미케네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 당시에 미케네 사람들은 청동기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대를 개척하고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시작한 도리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밀려나기는 하였지만, 미케네 사람들 역시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스 사람들에 비해 철기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리스 사람들 만큼 청동기가 세련되고 정밀하지 못했던 가나안에 비하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미케네 문명의 세례를 받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거, 그리고 병거를 주축으로 한 군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직 청동기조차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이러한 블레셋의 병거가 어떤 모양이었던지는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케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기 (Mycenaean bychrome)에 이 전차들의 모습을 그려 놓았거든요. 이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는 지중해 곳곳에 수출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건넌 토기라고 하면 지중해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교역 물품이었습니다. 국제 교역로와 바다와도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의 산간 지역인 라이스(훗날, 단지파가 이 곳에 이주하였다고 하여서 텔 단 (Tel Dan) 이라고 불림)의 무덤 (T 387)에서조차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가 발견될 정도이니 이 문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케네 사람들의 토기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값나가는 것인지라, 죽은 이의 부장품으로 함께 매장했던 모양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무덤의 주인은 1320BCE어간에 사망했고, 이 무덤에서 발굴된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1400-1320BCE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기 대략 15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기의 그림을 보면, 두 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고 있고, 병거는 청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탔는데, 앞 사람은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도 병거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거처럼 청동 갑옷 무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모양은 둥글둥글한 곱슬 머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미케네인들의 토기는 기원전 13세기말 12세기(대략 1200-1130BCE)에 걸쳐 사용되었던 라기스의 신전 터(Level VI, The Acropolis Temple)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라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한 유다 산지가 만나는 낮은 구릉 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신전이 사용되던 시기는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하던 시기이고, 아직 라기스를 점령하지 못했던 때였

습니다. 라기스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때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라기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 도시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하여 전쟁을 치루기도 했었겠지요.

이들의 신전에 발굴된 미케네인들(블레셋인들)의 토기 조각을 재구성 해보면, 워낙에 부분 조각이어서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미케네 문명의 세례를 받은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종류의 토기들의 밑그림들을 바탕으로 재현해 보건데, 이 토기에 그려진 병거에는 세명까지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인들의 병거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한 마리 또는 두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었다. (2) 병거는 청동 또는 철갑 무장이 된 네개의 바퀴살을 가진 형태이다. (3) 병거에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탈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병거를 모는 사람이고 나머지 둘은 전투병이다. (4) 병거에 오른 사람들도 모두 청동 또는 철로된 갑옷을 입었다.

사진설명

1 텔단의 무덤(T387)에서 발견된 미케네 양식 토기 블레셋 병거(Mycenaean Krater)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